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09-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비혼·저출산을 부채질하고 있지는 않나?

2024. 12. 11.

담당자 권성욱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9
e-mail | swkwon@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비혼·저출산을 부채질하고 있지는 않나.

주요 결과

- 일반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관찰 프로그램은 어느새 예능 시장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를 다룬 예능들이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다. 다만 높아진 인기와 함께 최근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들이 결혼 생활과 양육의 어두운 면만을 집중 조망하여 사회적 문제인 비혼과 저출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10월 25일~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중이 부부 갈등 및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과 비혼·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 부부 갈등이나 육아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3 가량이 결혼·출산·육아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젊은 연령대에서 더욱 강했다.
-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과장된 모습과 현실을 왜곡하는 장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방송으로 실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이 부정적 평가의 배경으로 추론된다.
-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연출, 과도한 설정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높은 상황이다.

1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영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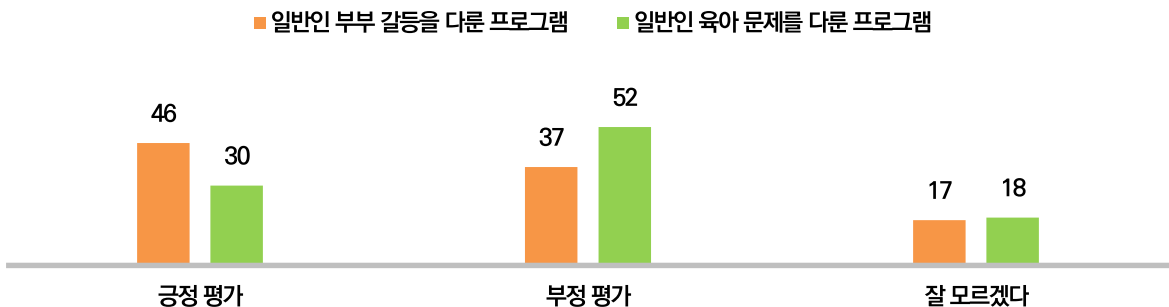
일반인 부부 갈등 프로그램은 긍정 평가가, 일반인 육아 문제 프로그램은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아

일반인의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떨까? 먼저 부부 갈등 프로그램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46%,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37%로 긍정 평가가 높다. 반면, 육아 문제 프로그램은 긍정적 평가 30%, 부정적 평가 52%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 프로그램에 따라 평가가 갈리기는 해도 어느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다.

일반인 부부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은 긍정적 평가가,
일반인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은 부정적 평가 우세

(단위: %)

프로그램 전반적 평가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긍정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부정 평가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일반인 부부 갈등 및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다수가 생각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부정적 인식 더욱 강해

그런데 두 프로그램이 결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을 때는 전반적 평가와 무척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부부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이 결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람은 64%로 차이가 4배에 달한다.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은 긍정적 영향 9%, 부정적 영향 73%로 차이가 더욱 크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부 갈등 프로그램(긍정적 영향 15%, 부정적 영향 67%), 육아 문제 프로그램(긍정적 영향 9%, 부정적 영향 72%) 모두 출산 및 육아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음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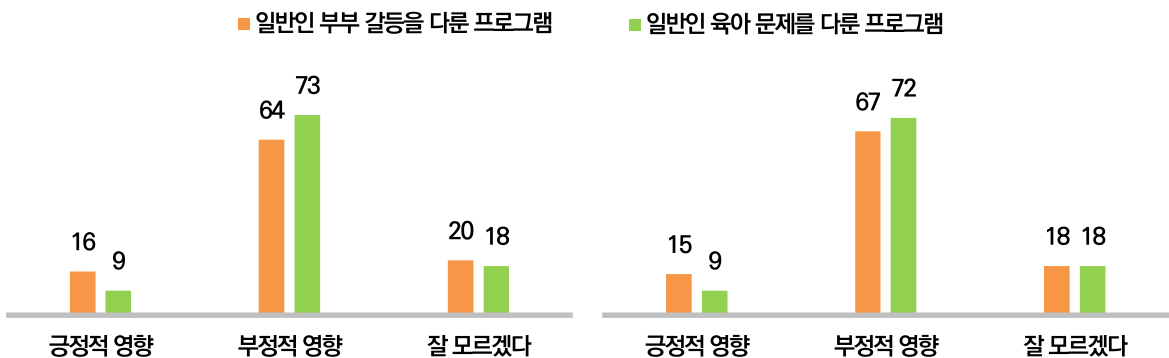
특히 40대 이하 청년·중년층에서는 50대 이상에 비해 이들 프로그램들이 결혼이나 출산·육아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높다. 실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연령대에서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 프로그램을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 부부 갈등 및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다수가 생각

(단위: %)

프로그램이 결혼 생각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이 출산 및 육아 생각에 미치는 영향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결혼/출산 및 육아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1: 결혼 생각에서 긍정적 영향은 '무척 결혼을 하고 싶게 한다+결혼을 하고 싶게 하는 편이다', 부정적 영향은 '전혀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게 한다+결혼을 하고 싶지 않게 하는 편이다' 응답 제시함.

비고2: 출산 및 육아 생각에서 긍정적 영향은 '무척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게 한다+아이 낳아 기르고 싶게 하는 편이다', 부정적 영향은 '전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 않게 한다+아이 낳아 기르고 싶지 않게 하는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젊은 연령대에서 부정 인식 더욱 강해

(단위: %)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일반인 육아 문제 프로그램	일반인 부부 갈등 프로그램	일반인 육아 문제 프로그램	일반인 부부 갈등 프로그램
전체	(1000)	73	64	72	67
연령					
	18-29세 (158)	82	74	77	79
	30대 (149)	76	75	76	76
	40대 (177)	78	71	77	74
	50대 (196)	65	60	67	62
	60대 (173)	70	57	70	60
	70세 이상 (147)	68	49	67	51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결혼/출산 및 육아에 대한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1: '결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전혀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게 한다+결혼을 하고 싶지 않게 하는 편이다' 응답 제시함.

비고2: '출산 및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전혀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 않게 한다+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 않게 하는 편이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25. ~ 28.

2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 프로그램이 결혼 및 출산·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화면 속 모습은 절반의 진실일 뿐

일반인 부부의 갈등과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결혼과 출산·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현실 왜곡이다. 사람들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문제와 갈등에는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인식한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0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대중이 매긴 현실 반영 점수는 부부 갈등 프로그램은 4.9점, 육아 문제 프로그램은 5.1점이다. 방송이 현실을 일정 수준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그만큼의 거짓이 섞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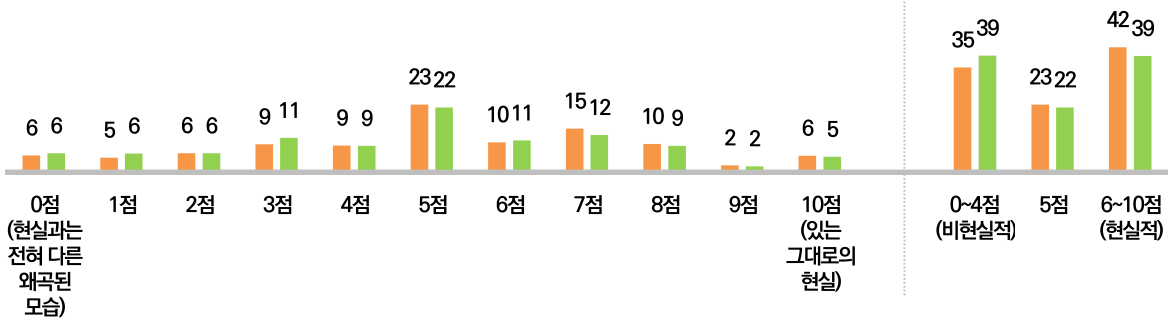
(단위: %)

일반인 육아 문제와 부부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 내용, 현실 반영도는 10점 만점에 5점 수준

■ 일반인 육아 문제 프로그램 ■ 일반인 부부 갈등 프로그램

일반인 육아 문제 프로그램 평균: 5.1점

일반인 부부 갈등 프로그램 평균: 4.9점



질문: 귀하께서는 일반인들의 육아 문제/부부 갈등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25.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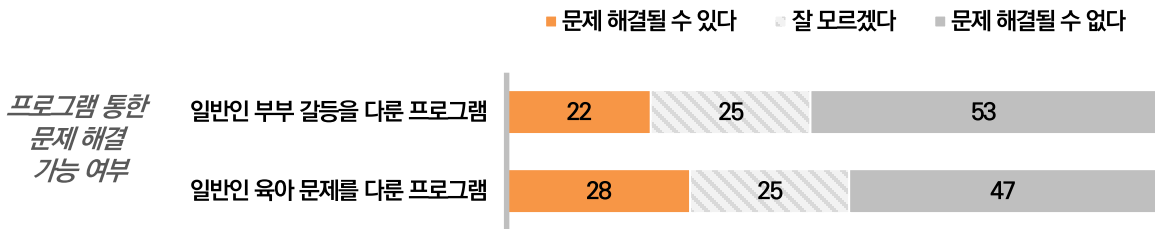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방송을 통해 부부 갈등, 육아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대답은 NO

이러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반인 출연자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본인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이다. 그렇다면 과연 방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방송을 보는 이들은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부부 갈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22%이며, 53%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본다. 육아 문제 또한 28%만이 방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47%는 해결될 수 없다고 평가한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문제나 갈등이 해당 방송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인식

(단위: %)



질문: 귀하께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일반인들의 육아 문제/부부 갈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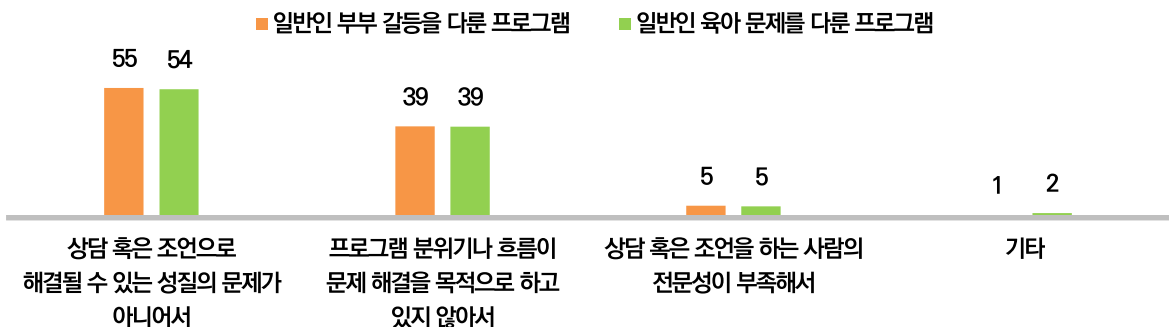
사람들은 출연자들이 직면한 문제가 단기적인 상담 혹은 조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또 프로그램 분위기나 흐름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즉 출연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기보다는 방송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여서라는 의견도 있다.

문제 및 갈등 해결 불가능 주된 이유는

(단위: %)

방송에서 다루지는 내용이 상담이나 조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문제 해결 불가능 이유



질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 갈등/육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자 수: 방송을 통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부부 갈등 프로그램 532명, 육아 문제 프로그램 472명)

조사기간: 2024. 10.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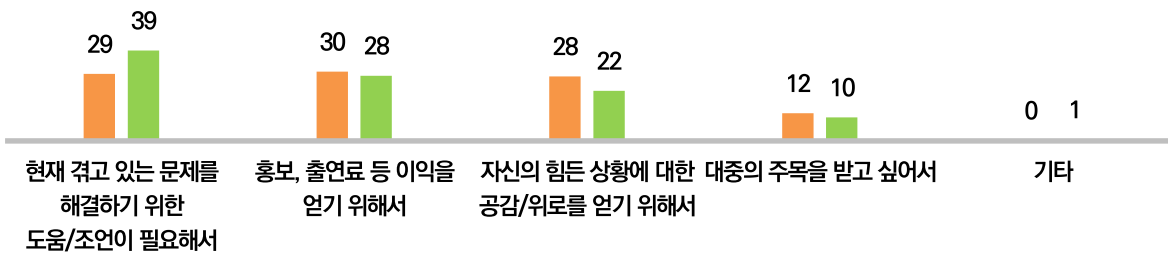
방송 출연자를 향한 시선에 의심도 섞여 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해서, 혹은 힘든 상황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얻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도 많지만, 홍보나 출연료 등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대중의 주목을 받고 싶어서 방송 출연을 결정한 것이라 보는 입장도 적지는 않다.

일부는 방송 출연에 개인적 목적 혹은 주목받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

(단위: %)

프로그램 출연진 의도

■ 일반인 부부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 ■ 일반인 육아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



질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부부 갈등/육아 문제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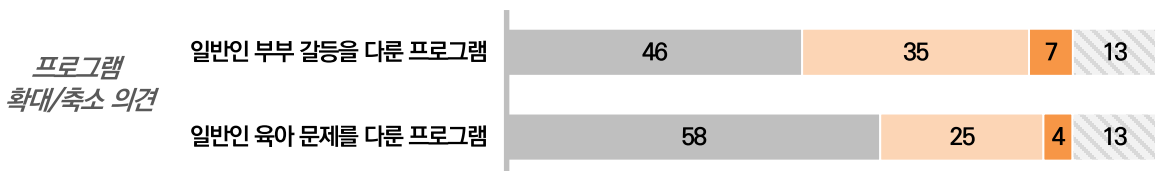
부부 갈등, 육아 문제 프로그램 축소하자는 의견이 우세

방송의 현실 왜곡, 문제 해결 가능성 부족, 출연자의 출연 동기 불신 등 여러 한계는 부부 갈등 및 육아 문제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떨어트린다. 이들 프로그램이 지금보다 줄어들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각각 46%(부부 갈등 프로그램), 58%(육아 문제 프로그램)이다. 축소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어서'이다. 앞서 얘기한 '과도한 설정이나 편집'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프로그램 확대를 희망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부부 갈등·육아 문제 다루는 프로그램 모두 축소 의견 우세

(단위: %)

■ 현재보다 줄어들어야 한다 ■ 현재가 적절한 수준이다 ■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 ■ 잘모르겠다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방송 프로그램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6. 27. ~ 7. 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저출산과 비혼, 그리고 미디어

프로그램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 작지 않아

저출산과 비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진지한 접근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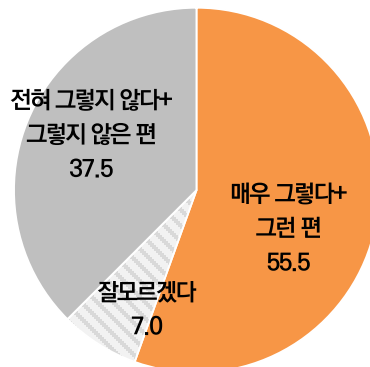
미디어가 사회 현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큼은 모두가 수긍하는 바이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접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불러올 파장을 섬세하게 고려해 다루어져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나눠져야 한다.

일례로 자살이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 시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사회적으로 자살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형성되었던 것은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니다. 이러한 파급력이 있기에 언론은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자살 장면에 대한 묘사를 지워나가는 것이다.

저출산과 비혼 문제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2023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미디어(보도 제외)의 자살 관련 표현이 자살 시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한 경우는 55.5%이다. 조사 시점이나 방법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결혼·출산·육아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0~70%대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미디어가 저출산과 비혼 문제에 초래할 부정적 효과는 어쩌면 자살의 경우보다도 더 클 수 있다.

미디어(보도 제외)의 자살 관련 표현이 자살 시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사람 55.5%
(2023 자살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단위: %)



질문: 귀하께서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살 시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자살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응답자 수: 전국 만 19세 ~ 75세 남녀 2,807명

조사기간: 2023. 8. 25. ~ 10.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남녀 대립과 갈등이 고착화되어 가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감안하면, 방송 프로그램은 기획과 연출부터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금쪽이에게 필요한 솔루션은 부모님의 관심이었듯, 예능 프로그램도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0월 기준 전국 약 94만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9,020명, 조사참여 1,27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4%, 참여대비 78.7%)
조사일시	• 2024년 10월 25일 ~ 10월 2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